

스피드를 자랑하는 새로운 서비스 「포스트쿠리어·서비스」

- 서독 -

서독 우정성(DBP)은 1989년 9월 1일부터 긴급물품이나 중요서류, 귀중품등에 대한 쿠리어·서비스를 개시했다.

긴급을 요하는 물품을 신속하고 간편하게 송부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는 대단히 매력적인 서비스인데 이 서비스는 이미 11개 지구에서 시험적으로 실시되고 있었으나, 금번 이를 전국적규모로 실시하게 됐다. 이에 「급송편」과 「직송편」의 2종류가 있고, IC 쿠리어(도시간 특급열차이용의 쿠리어·서비스) 및 EMS(엑스프레스·메일·서비스)와도 연결되어 있어 전화한통으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급송편」이란, 접수한 물품을 5시간 이내에 배달하는 것으로 최고중량은 20kg까지이며, 요금은 오전6시부터 오후10시까지 사이에 배달하는 것은 17마르크, 오후10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의 경우에는 20마르크이다.

52개도시를 커버하는 「직송편」은 더욱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송달의뢰를

받은 후 늦어도 1시간이내에 집하하고 가장 빠른 방법으로 지정된 장소에 배달한다.

이경우에도 최고중량은 20kg 까지이며 요금은 6km까지는 25마르크 이를 초과하면 6km마다 10마르크씩 가산한다.

이 서비스는 IC 쿠리어와 연동되어 있는 「직송편 플러스 IC 쿠리어」에 의하여 고품질화를 도모하고 있다. 우체국직원이 우편물을 수령한후, 이를 연방철도(DB)의 IC 쿠리어·서비스창구에 송부한다. 우편물은 다음 도시간 특급열차에 의하여 소정의 역에 수송하면, 우체국으로부터 수취인에게 배달된다. 최고중량은 10kg까지로 되어 있다.

「직송편플러스 EMS」의 경우는 저녁때에 창구에 내놓으면 유럽의 주요도시 및 뉴욕 앞인 것은 다음날 아침에는 배달된다. 아시아, 호주, 남아프리카의 도시에는 발송의뢰한 후 2일 내지 4일이면 도착한다.

(우정 1989. 12)

*스피드를 자랑하는 새로운 서비스 「포스트 쿠리어·서비스」